2022년 05월 26일

KIWOOM Daily

■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**Strategist 한지영** 02)3787-5241 hedge0301@kiwoom.com
Market 김세헌 02)3787-5150 saehun.kim@kiwoom.com

미 증시, 의사록 안도감, 소비주 강세 등으로 반등

미국 증시 리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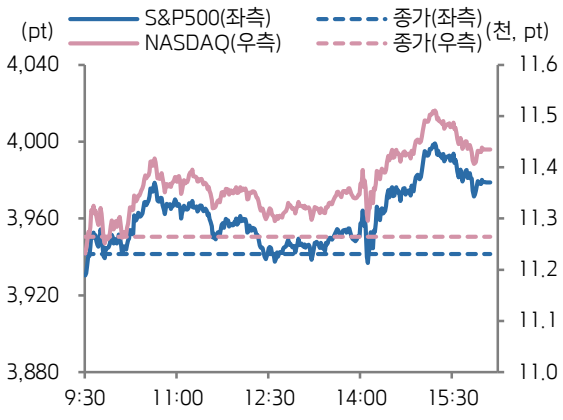
25 일 (수) 미국 증시는 매파적인 FOMC 의사록 내용에도 불구하고 저가매수세, 소비재 강세에 힘입어 큰 폭 상승. S&P500 지수는 장 초반 경제지표 부진, FOMC 의사록에 대한 경계감 등으로 0.3% 하락 출발. 테슬라(+4.9%), 아마존(+2.6%), 엔비디아(+5.1%) 등 최근 낙폭이 컸던 소비, 반도체주 중심으로 저가매수세가 유입되었지만, 오후 FOMC 의사록 발표를 앞두고 상승폭이 제한적인 모습을 보임. 의사록 발표 후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되자 성장주, 소비재 중심 반등에 힘입어 상승폭을 확대(다우 +0.6%, S&P500 +0.95%, 나스닥 +1.51%, 러셀 2000 +1.95%)

5 월 FOMC 의사록에 의하면 대부분 연준위원들은 50bp 금리 인상이 "향후 두어 번 회의에서 적절하겠다"고 합의. 추가적으로 인플레이션은 통제하기 위해 성장률을 제한시킬 수 있는 수준까지 올릴 가능성까지 논의됨. 하지만 최근 시장은 이미 향후 6,7 월 FOMC 에서 50bp 추가 인상과 더불어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인 만큼, 의시록은 추가 하방 요인보단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. 한편 미국 4 월 내구재주문은 전월대비 0.4% 증가(예상 +0.6%, 전월 +0.6%)하며 시장 예상치를 하회.

업종별로 유틸리티(-0.1%), 헬스케어(-0.02%)를 제외한 전업종 상승. 이날 경기소비재(+2.8%), 에너지(+2%), IT(+1.2%), 커뮤니케이션스(+0.9%)의 상승폭이 컸음. 이날. 노드스트롬 매출 호조세로 리오프닝 기대감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엑스피디아(+6.0%), 메리어트(+4.5%) 등 여행주들도 급등.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(+2.0%), 다우 항공 섹터 지수(+3.0%) 모두 큰 폭 상승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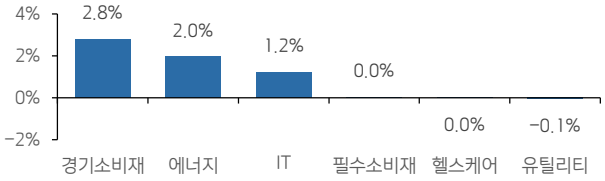
종목별로 노드스트롬(+14.0%)은 EPS 부진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펜데믹 이전 수준까지 급등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며 주가 급등. 노드스트롬 효과에 힘입어 아마존(+2.6%), 배스바디앤웍스(+8.7%), 언더아머(+7.0%), 랄프로렌(+2.8%) 등 기타 소비주들 급등. 전일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톨브라더스(+8.0%)는 어닝서프라이즈에 급등했고 레나르(+5.2%) 등 기타 주택건설 업체들의 주가들도 동반 상승. 한편 FOMC 의사록 공개 이후 애플(+0.1%), 알파벳(-0.1%) 등 오후 반등하면서 보합권에서 마감.

S&P500 & NASDAQ 일중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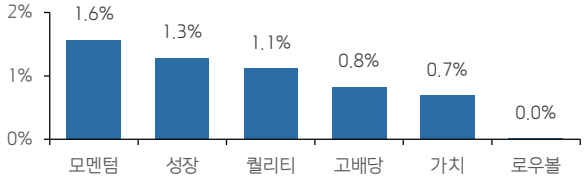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스타일별 주가 등락률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주요 지수

주식시장			외환시장		
지수	가격	변화	지수	가격	변화
S&P500	3,978.73	+0.95%	USD/KRW	1,264.50	-0.15%
NASDAQ	11,434.74	+1.51%	달러 지수	102.10	+0.24%
다우	32,120.28	+0.6%	EUR/USD	1.07	+0.01%
VIX	28.37	-3.67%	USD/CNH	6.71	-0.02%
러셀 2000	1,799.16	+1.95%	USD/JPY	127.29	-0.02%
필라. 반도체	2,882.93	+1.98%	**채권시장**		
다우 운송	13,743.97	+1.22%	국고채 3 년	2.945	-1.5bp
유럽, ETFs			국고채 10 년	3.181	-2.1bp
Eurostoxx50	3,677.10	+0.81%	미국 국채 2 년	2.492	+1.3bp
MSCI 전세계 지수	629.97	+0.68%	미국 국채 10 년	2.745	-0.5bp
MSCI DM 지수	2,680.46	-0.81%	**원자재 시장**		
MSCI EM 지수	1,016.99	-1.69%	WTI	110.33	+0.51%
MSCI 한국 ETF	66.00	-0.18%	금	1852.5	-1.01%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,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

check

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

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	MSCI 한국 지수 ETF 는 0.18% 하락, MSCI 신흥국 ETF 는 +0.49% 상승. 유렉스 야간선물은 0.14% 상승. NDF 달러/원 환율 1 개월물은 1266.41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, 달러/원 환율은 1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.
주요 체크 사항	1. 5 월 FOMC 의사록 안도감의 국내 증시 확산 여부 2. 엔디비아의 시간외 주가 급락이 국내 반도체주들에게 미치는 영향 3. 한은의 5 월 금통위 결과 및 이후의 기자회견 코멘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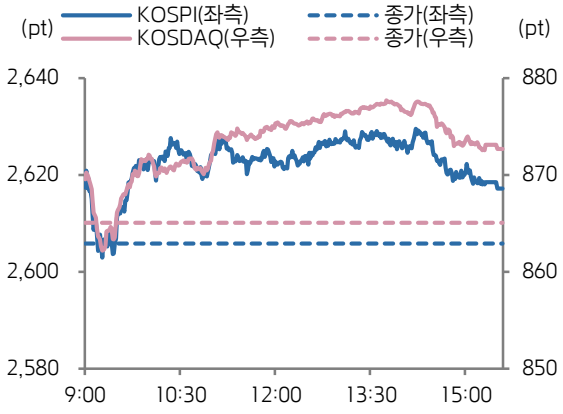
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

5 월 FOMC 의사록에서는 1) 대다수 위원들의 양적긴축과 향후 2 차례 50bp 금리인상 동의, 2)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불확실성, 3) 우크라이나 사태 및 중국의 봉쇄조치에 따른 경제 전망 위험 증가 등이 언급됐으며, 이는 5 월 FOMC 및 이후 연준 위원들 발언에서 이미 확인했던 내용이 대부분이었음. 이처럼 연초 이후 공개될 때마다 불확실한 변수를 유발해 시장 충격을 가했던 기존 의사록(12, 1, 3 월 의사록)들과는 달리, 5 월 FOMC 의사록은 새로운 내용이 등장하지 않았다는 자체만으로도 시장은 안도했던 것으로 판단.

그러나 금번 의사록에서 인플레이션 용어가 약 60 여회 정도 언급됐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, 연준 역시 경기 펀더멘털에 대한 자신감은 있으나 인플레이션 방향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음. 향후 정책 결정이 데이터 의존적이라고 재차 강조한 만큼, 연준은 시중 물가의 유의미한 레벨 다운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, 인플레이션에 종속되어 수동적인 정책 결정에 나설 것으로 판단. 따라서 5 월 FOMC 의사록은 악재가 넘쳐나는 현재 환경 속에서 일말의 안도감을 제공하긴 했지만, 6 월 소비자물가와 6 월 FOMC 까지 인플레이션 및 연준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당분간 감내하면서 시장 대응을 해야한다는 기존의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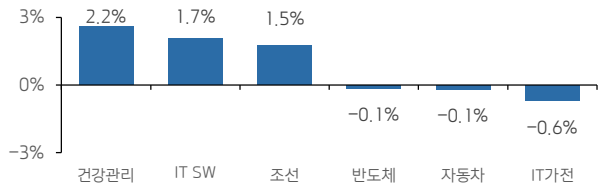
이를 고려 시 국내 증시는 5 월 FOMC 의사록 안도감에도 제한적인 주가 흐름을 보일 것으로 판단. 최근 시장에서는 서버용 반도체 오더컷이라는 루머성 재료로 논란이 일어난 상황 속에서 엔비디아(+5.1%)가 1 분기 서프라이즈에도 매크로 불확실성(전쟁, 공급난 등)에 따른 가이던스 하향으로 시간외 6%대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국내 반도체주들의 주가 변동성을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. 한편, 장중 발표 예정인 5 월 금통위 결과는 25bp 인상이 예상되며 시장에서도 선반영해오고 있었던 만큼, 향후 금리인상 강도와 속도에 대해 가늠할 수 있는 신임 한은 총재의 기자회견에 시장의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전망.

KOSPI & KOSDAQ 일중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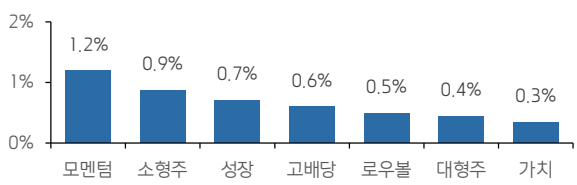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스타일별 주가 등락률



자료: Bloomberg, Quantiwise, Fnguide, 키움증권

Compliance Notice

-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 -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고지사항

-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-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, 유가증권의 종류, 종목,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. -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, 복제, 전시, 배포, 전송, 편집, 번역,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·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.